

발제3, 龔用卿 『使朝鮮錄』 (pp.189-280)

○ 변경지역(평화시기) vs 조선 입국 이후

○ 조선에서 周의 禮樂의 문명 원리가 충실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

- 당시 현안이었던 명 황제의 詔書를 조선 국왕이 ‘五拜三叩’를 거쳐서 받도록 하여 禮에 입각한 양국 관계 재구성의 과정을 보여줌.

「盤山驛 벽에 쓰인 시의 韻을 이어서」

“머나 먼 요새의 진흙길에 들풀이 황량한데, 먼 하늘 한번 보니 바다 구름이 길다.

산들이 소용돌이 치는 遼左에 강대한 軍鎭 열려 있고, 神京 끼안은 땅에 거대한 방어시설 세워져 있다.

... ..

동쪽 오며 날마다 수레와 말을 만나니, 貢物 들이는 藩夷들이 帝王에 모여든다.”

「高平驛을 지나며」

“... ..

이 역참은 예전부터 고생했다 말하지만, 성채를 병사들이 잘 지키고 있다.

먼 지방이 안정되어 어지러워지지 않았으니, 오랑캐가 일으키는 먼지를 알아서 깨끗이 청소한다.”

「鳳凰 옛 성을 지나며 옛날을 생각한다」

“산 위에 높은 성이 자색 안개를 뚫고 솟았는데, 황량한 언덕에 남겨진 옛 터가 아직도 본디 그대로다.

... ..

사방 교외는 해가 길고 창과 방패 조용해서, 세상과 떨어진 별개의 洞天과 같다.”

「산 아래에서 큰 사슴 두 마리를 사냥해서 잡는 것을 구경하다」

“... ..”

打圍는 본래 胡人の 놀이인데...

들에서 고기 삶고 잇따라 술 마시며 胡人 노래 부르는데, 비파 소리 절절하고 봄바람은 살랑인다.

... ..”

「탕참(湯站)에서」

“... ..”

중화 땅 다한 곳에서 서쪽 지역 굳게 지키고, 외국의 번유(藩維)가 바로 이곳에서 돌아간다.

만리 먼 곳 바람과 구름이 鳳闕을 쳐다보고, 九天 하늘의 해와 달이 용안 곁을 모신다.

말 전하는 사졸과 변경지키는 자들은, 이곳이 바로 東遼의 第一關이라 한다.”

「팔참(八站)을 가다」

“요동의 여덟 역참은 가기 어렵다 말들 하는데...

... ..”

지난 선조의 正德 연간 생각하면, 오랑캐 기병이 동쪽 산으로 떼를 지어 몰려왔다.

변경 병사와 수비 장수가 살육을 당했으니, 길손이 길 가다 이를 듣고 얼굴 붉히며 마음 아팠다.

그 뒤로 천자께서 두터운 은혜를 고루 펴서, 越裳의 공물 받고 蠻貊에게도 베풀었다.

안으로 (덕을) 닦고 밖으로 (오랑캐) 물리쳐 東海가 편안해졌고, 도로도 오늘날엔 틈과 벽이 없어졌다.”

「 압록강을 건너며 」

“

이 땅이 신령하여 도복(島服)에서 으뜸임을 비로소 믿게되니, 천연의 해자(垓字)로서 중화과 구별됐다.

부여(扶餘) 가는 길 위에 봄바람 일찍 불고, 압록강 강변에는 버들꽃이 피어있다.

이제부터 문풍(文風)이 하나로 통일되고, 만년 번영(藩屏)이 황가(皇家)를 호위하리.”

「 광산(郭山)의 효녀 」

“

내 황명을 받들어 요해(遼海)를 지나오며, 곳곳의 토착풍속을 애써 물어 채집했다.

... ..

皇風이 천하의 본보기 된 이래로, 은택이 東藩에 미쳐짐이 이와 같았다.

... ..

그대는 보지 않는가, 藩王이 돌 세우고 그 문에 깃발 세워, 이제까지 그 명성과 도의를 예로부터 권장해 왔음을.”

「箕子廟를 알현하고 」

“귀한 친척은 사직의 존망을 깊이 생각해도, 일개 필부는 폐약을 저질러 이미 어지러워졌다.

사람들이 주 왕실에 알려 수레 내려 방문했지만, 당시 머리 풀어헤친 마음을 누가 알리오.

군대가 孟津 건너 일전 벌일 때, 길에서 禹範 전해주어 餘音이었다.

...”

「보산(寶山)에 이르러 국왕이 우리의 말을 따라 교외에서 조서를 맞이하고 먼저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고두하는 예를 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시를 지어 기쁨을 적어 둔다」

“聖代の 文風이 멀리까지 미쳐지니, 현명한 藩王의 禮敎가 넉넉하다.
수레와 문자가 밝게 통일되고, 예의의 규범은 여러 고을에 갈마든다.
태양이 떠올라서 하늘에 걸렸더니, 흐르는 무지개가 바다 귀퉁이까지 비
춘다.
... ..”

「또 듣기에, 국왕이 여러 유생들에게 함께 교외로 나가서 조서를 맞이
하게 하라는 우리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고 한다. 이에 이 시를 지어서
禮의 시작에 대해 적어둔다」

“덕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동쪽 번국의 禮數는 너그럽기
도 하다.
교외에서 맞이하여 먼저 다섯 번 절하고, 길에서 배알하는 수많은 관원
들도 정중하다.
지척의 거리에서 맑은 풍채를 뵈고, 분주히 좇으며 패옥 소리를 섞는다.
... ..”

「東坡館에서」

“... ..”

東藩이 서쪽에서 만 리나 떨어졌으니, 眉山의 蘇子는 종적이 끊어졌다.

... ..

비록 길과 마을이 서로 통하지 않는다 해도, 세상의 만물은 우연히 같을
수도 있다.

이름 짓고 뜻 취하는 것이 다를 필요는 없으니, 어찌 다만 큰 액자만 蘇
公과 같겠는가?

... ..

西京이 어찌 周의 豊鎬이겠나, 京畿가 어찌 畿甸과 같을 수 있겠는가?
종류가 같으면 어디인들 여럿 있을 수 있으니, 사신이 어찌 의심할 필요
있겠는가 말 전해 주소.”

「연일 국왕이 판서와 승지를 보내 와서 안부를 묻고 벽제에 이르러서는
다시 金 議政과 尹 判書, 朴 承旨와 黃 承旨를 보내 와서 맞이하였기에,

이 시를 지어서 이를 기린다」

“국상과 여러 관원 멀리와서 맞아주고, 더구나 관반은 벌써 많은 정을 베풀었다.

현명한 藩王이 대궐을 연모하여 해바라기 마음 간절하니, 성왕께서 은혜를 베풀어 낮 해가 기울었다.

백 갈래 내처럼 정이 흘러 작은 바다로 모여들고, 수 많은 별들이 우러러보며 前星을 둘러싼다.

조선의 예를 지킨 유래는 오래되었으니, 응당 箕箒 알아 교화의 가르침을 실행했다.”

「漢城으로 들어가, 맑은 날씨 즐기며 이 시를 짓다」

“... ..

조정의 예약이 먼 나라까지 윤택하게 하고, 龍章이 두루 미치는 곳은 모두 왕에 귀복한다.

온 나라가 분주히 달리며 환호성이 진동하고, 노인 아이 모여들어 물가와 담장에서 구경한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聖君이 큰 도량이 八荒을 갈게 하니, 山東이 조칙 듣고 漢의 황제에게 들려갔음을.”

「國王에게 드림」

“오래 전부터 符節 잡고 東藩을 지켰으니, 충효를 대대로 이으며 담장과 기둥이 되었다.

나라의 법도에 아직도 周의 禮樂 남아있고, 인륜의 문화로서 여전히 漢의 의관을 지킨다.

다시는 숲속에서 鴻雁의 노래가 불리지 않고, 들녘에서는 考槃의 읊조림이 들리지 않는다.

聖主은 은총과 덕택이 크고 깊어서, 長安 곁에 정성어린 마음 있도록 언제나 허락됐다.